



기쁨앤드 '미라클리얼다운'

100% 친환경 원단으로 만든 '발수' 다운패딩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뿜겨주는 기능)

최근 몇 년간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아웃도어 제품이 인기를 끌고 있다. 유명한 아웃도어 브랜드들의 제품 특징 중 하나는 '발수' 원단 위에 얇은 막을 코팅해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뿜겨주는 기능이다. 비나 눈이 와도 걸림과 인감이 물에 젖지 않아 체온을 따뜻하게 유지해 준다. 이 같은 발수 기능을 내기 위해 제조사들은 과불화합물(PFCs)이라는 인공화학 물질을 사용한다. 물과 기름에 저항하는 특성 때문에 아웃도어 의류의 표면 처리제뿐 아니라 프라이팬 코팅제 등으로도 쓰인다.

문제는 PFCs가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돼 암, 내분비계 교란, 생식기능 저하 등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이다. 19년간 패션업계 대기업에서 일해온 남명현 기쁨앤드 대표는 전 직장에서 발수 패딩을 기획하다가 우연히 PFCs의 위해성을 알게 됐다. 그가 퇴사한 뒤 PFCs를 사용하지 않은 '비불소계(PFC FREE) 패딩'인 '미라클리얼다운'을 개발하게 된 배경이다.

◆위해물질 없는 친환경 패딩
기쁨앤드는 100% 친환경 원단으로만 발수 다운패딩을 제조하는 업체다. 가장 큰 특징은 PFCs를 쓰지 않고도 비와 눈을 막는 발수 기능을 탑재한 패딩이라는 점이다. 남 대표는 "식품이나 화장품업계에서는 '친환경'이 대세 키워드로 자리 잡았지만 기능성 의류업계는 아직 그럴



남명현 기쁨앤드 대표가 위해 물질인 과불화합물(PFCs)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패딩 '미라클리얼다운'을 소개하고 있다. 심성미 기자

암·내분비계 교란 일으키는 인공화학 물질 PFCs 사용 안해

친환경 발수제 넣어 원단 개발 세탁 후에도 보존력 변화 없어 침낭·침구제품에도 적용 검토

지 않다"며 "곧 의류시장에서도 비슷한 바람이 불 거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PFCs에 대한 경각심이 커 2016년부터 비불소계 친환경 패딩 제품이 꽤 나오기 시작했다"며 "아디다스가 올해 봄·여름용으로 내

놓은 제품은 100% 비불소계"라고 설명했다. 고어텍스도 유명한 미국 고어사는 2023년 말까지 모든 원단에 PFCs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쁨앤드의 '미라클리얼다운'은 PFCs를 쓰지 않고도 발수 효과를 내기 위해 비불소계 발수제인 'CO'를 사용했다. 남 대표는 "경량 패딩에 맞는 얇은 비불소계 원단을 개발했다"며 "오염물질을 튕겨내는 한편 내부 열기나 땀을 실시간으로 배출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밝혔다.

◆세탁에도 끄떡없는 발수력
일반 패딩은 세탁을 할수록 보존력이 떨어진다. 겉 원단이 해져 물이 스며들면 털의 숨이 죽기 때문이다. 남 대표는 "미라

기쁨앤드	
설립	2016년 10월
위치	서울 동작구 원동로
제품	다운 패딩 '미라클리얼다운'
특징	과불화합물(PFCs)을 사용하지 않은 친환경 원단 적용

클리얼다운은 오히려 PFCs 처리를 한 패딩보다 발수력이 강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험 결과 PFCs를 사용한 D사 패딩을 20회 세탁하면 발수력은 새 제품의 70%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미라클리얼다운의 발수력은 평균 93.3%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는 "발수력을 높이기 위해 각종 친환경 발수제를 혼합해 원단을 개발한 결과"라고 덧붙였다.

남 대표는 2016년 10월 창업한 이후 누적 매출 3억3000만원을 올렸다. 지금까지는 LF 등과의 기업 간 거래(B2B) 납품에 주력했지만 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B2C)에 나서겠다는 게 남 대표의 계획이다. 그는 "백화점이나 홈쇼핑 등에 입점하는 한편 침낭이나 침구 제품에도 독자 개발한 친환경 발수 원단을 적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복을 타기로 해 조달청 납품도 준비 중이다. 그는 "의류 브랜드 중 처음으로 '2018 올해의 녹색상품'에도 선정됐다"며 "윤리적이고 친환경적인 소비를 지향하는 소비자들을 집중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중소·벤처 글로벌 지원센터 중진공, 美 시애틀에 설치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이 혁신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스페셜(외형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내년 미국 시애틀에 글로벌혁신성장센터를 설치한다.

중진공은 이상직 이사장 등 임직원이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 시애틀 등을 방문해 글로벌혁신성장센터 설치 후보지 검토에 나섰다 23일 밝혔다.

중진공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클린텍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인큐베이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드래피퍼대 창업캠퍼스, 전기자동차 기업인 테슬라 스마트공장을 잇달아 방문해 협업 방안을 모색했다. 워싱턴DC 주정부, 워싱턴대 창업캠퍼스, 마이크로소프트, 보잉 등도 방문해 글로벌혁신성장센터와의 협력시스템 구축을 협의했다.

중진공은 내년 신규 사업인 혁신일자 리창출금융 지원사업, 청년창업사관학교 및 창조경제센터 등 국내 혁신 인프라

에서 발굴한 중소벤처기업을 글로벌 혁신성장센터로 연결시켜 자산가치가 1조원이 넘는 세계적인 유니콘으로 발돋움시킬 계획이다. 글로벌혁신성장센터는 세계적인 혁신 허브지역에서 유니콘 육성을 촉진하는 공공액셀러레이터 역할을 담당한다. 글로벌 벤처캐피탈 투자, 기술사업화, 기술 인수합병(M&A) 알선, 현지 선진기관과 연계한 스마트팩토리 전문인력양성 등을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진공은 내년 예산 32억원을 확보했다. 또 시애틀, 중국 중관춘, 인도 뉴델리 등 세계적인 혁신 허브지역을 중심으로 센터 설치를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

이 이사장은 "협력채널 구축을 통해 글로벌혁신성장센터의 핵심인 공공액셀러레이팅 기능을 안착시켜 한국형 유니콘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100만원대 희귀질환 유전자 검사 표 시장 공략해 '진입장벽' 높일 것"

헬스케어 스타트업

쓰리비리언 금창원 대표

창업 2년차 유전자검사 전문기업 쓰리비리언은 지난해 1년간 미국에서 희귀질환 관련 소비자 의료 유전자검사(DTC) 시범서비스를 했다. DTC는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 회사는 한 번의 유전자 검사로 희귀질환 7000여 종을 진단하는 독보적인 인공지능(AI) 기술로 주목받았다.

하지만 올해 초 미국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DTC 대신 의료기관에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간 거래(B2B) 모델을 가지고서다. 금창원 대표(사진)는 "미국에서 깨달은 것은 사람들이 자기가 어떤 병에 걸릴 가능성보다 어떤 병에 걸렸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시장 수요가 당초 예상과 달랐던 것이다.

희귀질환 진단은 쉽지 않은 과제다. 희귀질환자가 어떤 병에 걸렸는지 확인하는 데만 평균 5년이 걸린다. 환자 40%는 오진을 경험한다. 미국에서 유전자 검사로 병을 진단하는 서비스를 하려면 실험실표준인증(CLIA)을 받아야 하는 데 여기에 수석역원이 드

는 것도 한국으로 돌아온 이유다. 쓰리비리언은 지난 11월 마크로젠과 희귀질환 유전자 진단 제품을 내년 2월 출시하기로 계약을 맺었다. 금 대표는 "10만 개의 유전자 변이 가운데 희귀질환 관련 유전자 2만 개를 분석할 수 있는 우리 회사의 핵심 기술을 토대로 한 제품"이라고 했다.

가격은 100만원대로 400만원 이상인 미국의 25% 수준이면서도 정확도를 80%로 높였다. 금 대표는 "희귀질환을 앓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환자가 대상"이라고 했다. 국내 희귀질환자는 250만 명, 전 세계적으로는 3억5000만 명에 이른다. 이 회사는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 병원 6곳에서 얻은 환자 데이터로 제품을 개선해 3년 안에 국내에서의 로기기가 허가를 받을 계획이다.

이 회사는 아시아 시장 선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 희귀질환 진단 시장이 세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그는 "아시아 희귀질환자 데이터를 매년 1만 건씩 집중적으로 모아 미국, 유럽 등의 경쟁업체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진입장벽을 쌓을 것"이라고 했다.

2021년께 연매출 150억원을 올린 뒤 상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임유 기자 freeu@hankyung.com



10년간 전문경영인 6번 바뀐 동화약품... 왜?

뉴스카페

유광렬 사장 10개월 만에 물러나 교체 배경 둘러싸고 역측 무성

올 3월 취임한 유광렬 동화약품 사장이 10개월 만에 사임했다.

동화약품은 지난 21일 윤도준 회장과 유 사장의 공동대표체제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유 사장은 일선상의 사유로 사임하고 인사·홍보실을 맡아 온 이 상무가 대신 자리를 맡는다고 회사 측은 밝혔다.

120년 역사의 국내 1호 제약사인 동화약품은 제약업계에서 능력을 인정받은 전문경영인을 6번이 떠나보냈다. 2012년 조정수 사장이 임기 1년을 남기고 물



윤도준 회장

러난 게 시작이었다. 안선 출신인 박재화 부회장(1년7개월), 화이자 국내영업이사 출신인 이송래 사장(1년11개월), 동화약품 일반의약품사업부 상무였던 오희수 사장(6개월), 박스터코리아 대표였던 손지훈 사장(1년11개월) 등이 출몰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업계에서는 일반의약품 도매유통 전문가인 유 사장이 올해 큰 폭의 외형 성장을 이뤄내고도 임기 1년도 못 채운 배경을 놓고 온갖 역측이 나돌고 있다. 동화약품은 지난해 2588억원이었던 매출이 올해 3000억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매출증가율은 16% 안팎으로 2017년(9%)의 두 배 가까이 된다. 캐시 환명수 등 일반의약품은 물론 수입 의

약품 판매 호조 등에 힘입은 성과다. 하지만 수익구조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 사장이 오너인 윤 회장과 경영 방식, 사업 구조 개편 등에서 갈등을 빚은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반의약품 매출비중이 40%에 이르고 외국 제약사로부터 수입한 의약품 매출이 약 35%로 높은 사업 구조를 바꾸려는 과정에서 의견 차이가 컸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동화약품은 최대주주인 동화지엔피와의 내부거래 때문에 일감몰아주기 의혹도 받고 있다. 유리병 제조업체 동화지엔피는 매출의 절반 가량을 동화약품에 의존한다.

업계 관계자는 "동화약품은 잦은 전문경영인 교체로 인한 리더십 위기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

중기부, 창업지원 플랫폼 '팁스' 운영사 10곳 선발

중소벤처기업부가 팁스(TIPS) 프로그램 운영사 10곳을 새롭게 선정한다고 23일 발표했다.

팁스는 엔젤투자사 등이 기술창업 프로그램을 발굴하면 정부가 연구개발과 마케팅 비용 등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창업 촉진 제도다. 2013년 처음 도입됐고 이번에 선발되는 업체는 내년 1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정부는 비수도권 소재 투자사가 가점을 부여해 창업 인프리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창업 활성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선정 대상은 엔젤투자·재원제공·창업팀 보육, 글로벌 진출 지원역량을 갖춘 중기부 등록 액셀러레이터(스타트업 투자·육성 업체)다. 신청 기간은 24일부터 내년 2월 11일까지다. 이상우 기자 idol@hankyung.com

박이슬
홍산본부
신용상사업단
지원장

이수중
홍산본부장

천재훈
홍산본부
재원
사업단장

피플라이프가 주도하는 GA 빅뱅

금융판매전문회사를 선도할 미래의 역량있는 매니저 및 FA를 모집합니다!

[모집부서 / 개인영업부서]

- 본부장 ————— 0명
- 사업단장 ————— 00명
- 지점장 ————— 000명
- FA ————— 0000명

[모집지역 : 전국 시,군,구]

※ 세부모집요강은 홈페이지에서 확인

피플라이프 검색 02-6906-9102

www.peoplelife.co.kr 피플라이프